

막 오른 현대중 정기선 시대... 친환경·수소 등 신사업 '가속'

정몽준 장남 사장으로 승진
체질 개선·먹거리 확보 속도
수소사업 진두지휘 성과 인정
친환경·신기술 융합에 방점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사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은 본격적으로 체질개선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정 사장은 지난 12일 승진인사를 통해 권오갑 그룹 회장과 함께 경영을 총괄하게 됐다. 그룹 주력사업을 맡아 경영 최일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회장이 기존 사업 경쟁력을 이끈다면 정 사장은 새로운 기술 융합을 통해 미래 경쟁력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 맡아 선박 서비스 사업 이끌어

정 사장은 선박 서비스에 대한 시장 요구가 크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2016년 12월 현대글로벌서비스 설립을 주도했다. 설립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발맞춰 친환경선박 개조·유지·보수사업, 스마트선박 개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지난해 말 기준 매출 9607억원, 영업이익 1614억원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인 7894억원 대비 약 22% 증가한 수치다.

특히 매출 증가 원인이 계열사 간 내부매출이 아닌 친환경선박 개조·유지·

보수사업 부문 등 신사업 확장을 통해 얻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내부매출액 비중은 설립 첫 해인 2016년 49%를 기록한 이후, 지난 2017년 22%, 2018년 19%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9년 기준 6%, 2020년 기준 8% 수준으로 낮았다.

또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그룹의 통합 스마트선박 솔루션(ISS)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 관제센터를 2019년 1월 설립하고, 운항 선박의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경제적인 운항을 돕는 솔루션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어 추후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정 사장은 2018년 선박/해양 영업본부 대표부임 이후 지난 2019년 사우디 합작조선소인 IMI와 설계기술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이 1971년 설계도면을 빌려 사업 시작하지 반세기만에 역으로 설계 기술력을 수출하는 회사로 성장하게 됐다.

해당 계약을 통해 IMI에 VLCC 기



지난 9월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수소모빌리티+쇼'를 찾은 기업 총수들이 포스코 부스를 둘러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허세홍 GS그룹 사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정기선 현대차그룹 회장, 허정석 일진홀딩스 부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사장.

본, 상해 설계도면과 설계지원, 기술컨설팅 등 설계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IMI에서 앞으로 건조하는 초대형유조선 1척당 로열티를 받게 됐다.

◆제조업에 ICT기술 융합 등...미래 경쟁력 확보

정 사장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신, 로봇사업 등 그룹 내 신사업 발굴과 투자를 주도해왔다. 정 사장은 4차 산업 혁명을 비롯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CT기술을 그룹 내 주요사업에 융합하는 디지털 혁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KT와의 폭넓은 사업협력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혁신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2020년 6월 KT와 그룹 간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AI 및 ICT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대중공업그룹 내 로봇 기업인 현대로보틱스도 KT와 5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호텔, 레스토랑 등에 쓰이는 서비스로봇 분야와 IC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등에 관한 사업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 사장은 "앞으로 제조업체의 경쟁력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시장 흐름을 읽고 변화하는 것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KT와의 폭넓은 사업협력을 통해 현대중공업그룹이 '디지털 혁신'으로 세계 리딩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계약의 의의에 대해 밝혔다.

친환경 미래 신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사장은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와 수소 및 암모니아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 수소 프로젝트 추진에 나섰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친환경 수소, 암모니아 등을 활용,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아람코로부터 수입한 LPG를 통해 블루수소를 생산, 탈황

설비에 활용하거나 차량, 발전용 연료로 판매할 계획이다. 공정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해 활용함으로써 탄소제로 공정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아람코로부터 블루 암모니아를 제 공받아 2024년까지 설립 예정인 LNG 보일러의 연료로 일부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조선해양도 세계 조선사 중 최초로 LPG-CO2 동시운반선과 암모니아 운반·추진선 개발에 나서며 조선 사업에서 양사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3월 그룹의 역량을 총결집한 수소사업의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 친환경 시장을 선도할 조선해양·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특히 정 사장은 국내 최대 수소 산업 전시회인 수소모빌리티+쇼에 참석, 그룹의 수소사업 비전인 '수소 드림 2030'의 플랜을 공개하고, 수소의 생산부터 운송, 저장, 활용까지 그룹사의 인프라를 결집한 수소 밸류체인을 소개한 바 있다.

'수소 드림 2030'은 현대중공업그룹의 핵심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인 수소사업의 로드맵으로, 2030년까지 육상과 해상에서 친환경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사장은 "유기적인 밸류체인 구축은 수소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그룹 인프라를 토대로 국내 기업들과 시너지를 발휘, 수소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친환경 기업으로의 도약 의지를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소진공, 코로나 업무에 허덕... 처우 '바닥'

중기부 산하기관 11곳 국감

관련 기관 가운데 임금 가장 낮아
코로나 정책자금 4번 '업무 가중'

대부분 월100시간 이상 초과근무
강훈식 의원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 11개 산하기관 가운데 임금이 가장 낮아 처우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등 지금까지 네 차례의 코로나 정책자금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또 이달 27일부터는 손실보상금도 지급해야 하는 등 업무가 집중되고 있지만 제대로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업무 증가로 소진공 임직원 대부분이 월 100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하고, 직원의 절반 가량은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산자중기위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 임직원들의 전체 평균연봉(2020년 기준)은 4909만원으로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꼴찌'였다.

기술보증기금이 928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8209만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7161만원), 한국벤처투자(7036만원), 중소기업연구원(6558만원)도 '톱 5'에 포함됐다.

이어선 공영홍소핑(6358만원), 창업진흥원(6303만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6002만원), 중소기업유통센터(5837만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5212만원) 순이었다.

아울러 소진공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진행한 업무 스트레스 수준 진단 결과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업무가 크게 늘어나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다'는 답변이 전년에 비해 무려 361%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1차 재난지원금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가장 수고한 기관이 바로 소진공"이라며 "(주무부처와 소진공, 정치권은)공단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기재부와 적극 협

상해야 한다. 아울러 야당 의원분들께서도 (임금 인상을 위해)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이장섭 의원은 "소진공의 증가하는 업무에 따른 인력 총원과 임금 인상 등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원사격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의 미래를 염두해두고 중기부와 업무협조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최선의)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각종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창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사업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창진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통해 9개사가 약 250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면서 "2년간 5000억원이 넘게 투입된 관련 사업은 전수조사를 하면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누군가는 또 부당이득을 더 취했을 것이다. 이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업은 기업당 400만원 범위내에서 10%를 자부담하면 바우처를 이용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솔루션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2880억원, 올해 2160억원 등 1년간 총 50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승호 기자 bada@

'주 52시간' 확대 시행 중소·근로자 모두 '난색'

'주52시간제' 확대·시행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은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299인 미만 중소기업 414개사와 중소기업연합회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기업·근로자 설문 기업 절반 이상 "시행 어려워" 조선업 근로자 76% "시행 반대"

우선 응답 중소기업의 54.1%는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어렵다'는 답변은 제조업(64.8%)이 비제조업(35.9%)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았다.

시행이 곤란한 이유로는 주로 '구인난'(52.2%), '유연근무제 활용 어려움'(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을 꼽았다.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주52시간제 시행이 불만이다. 조선업이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76%가 제도 시행에 반대했다. 특히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91.8%의 근로자들이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